

# 광주·전남 지방시대위원회, 행정통합 성공추진 맞손

광주·전남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광주광역시지방시대위원회와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는 21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공동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 시·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핵심 심의 기구이자 지휘본부로서, 행정통합의 전 과정에서 정책적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 행정통합 기본 방향의 정책적 정당성 확보 ▲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 비전 수립 지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을 통한 재정 지원 및 특례 발굴 ▲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고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지와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는 행정통합이 단순히 행

21일 공동간담회 개최... 정책 지원·소통 강화 담은 공동입장문 발표

자치분권·균형발전 컨트롤타워로 행정통합 정당성·사회적 합의 주도



정구역 통합을 넘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통합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질문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위원들 모두가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숙 전남지방시대위원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어

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가 시민 공감 속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 전남도·한국항공공사·전남관광재단, 여행업계 지원 맞손 무안국제공항 연계 전남 관광 활성화 등 협력기로

전라남도는 21일 한국항공공사,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여행업계 지원 및 전남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무안공항 운항 중단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여행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확실한 공항 운영 여건에서도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활용한 여행사 인센티브 공동 운영 ▲관광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협력 ▲데이터 공유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추진 ▲무안국제공항 관련 공동 협력사업 지속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 여행 상품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추진되며, 이는 단기적으로 지역 여행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단발성 지원

에 그치지 않고, 이미 확보된 정부예산과 도 자체 사업을 연계한 종합 여행업계 지원 대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여행상품 개발 지원비 6억 원을 활용해 전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를 지원하고, 여행업계 교육에는 1억 원을 지원해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관광기업 지원센터 조성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전남 지역 관광기업 육성과 창업·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 관광산업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 13억 원을 활용해 개발된 여행상품이 실제 해외 시장에서 판매·유치로 이어지도록 현지 홍보, 공동 판촉, 전남관광설명회 등 해외마케팅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염선호 기자

"가정에서 파충류와 양서류,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키우거나, 개인간 야생동물을 양도·양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 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남구 "도마뱀·미어캣 등 꼭 신고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 신고 제도' 시행

신고 대상은 기존의 법정 관리종을 제외한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 가운데 백색목록으로 지정된 880종을 비롯해 공익과 연구 목적의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또 기존 법정 관리종 중에 수출·수입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야생동물은 단 1마리일지라도, 신고 및 허가 없이는 수입과 반입, 양도, 양수, 보관을 할 수 없다.

신고 의무는 동물을 보유하게 된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보유·분양 등을 받은 동물은 올해 6월 13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위반한 때에는 최대 100만원(1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ins.mcee.go.kr) 또는 구청 6층 탄소중립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 내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남구청 탄소중립과(☎ 607-36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재일 기자

광주 동구는 최근 인사이동 시 공직자들이 받은 축하 화분을 기부받아 고립 위기에 놓인 1인 가구에 반려식물로 전달하는 '인사이동 축하 화분 나눔 전달식'을 가

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사이동 이후 약 일주일간 진행된 '축하화분 나눔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화분 100여 개를 전달하는 것으로,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기부된 화분은 독거 어르신 등 고립 위기 1인 가구 100가구에 반려식물 형태로

## 인사이동 축하 화분 1인 가구에 반려식물로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고립위기 가구 100가정에 전달

지원했으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됐다.

이번 사업은 동구가 수립·운영 중인 '기본복지가이드라인'의 '독거가구 반려식물 지원' 항목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돌봄이웃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 욕구조사 결과를 활용해 반

려식물 지원을 희망한 가구에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립위기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상·하반기에도 인사이동 축하 화분 나눔을 통해 총 160가구에 반려식물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6

일에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682만 원을 모아 기부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반려식물이 이웃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본 복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주민 삶에 밀착한 복지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 서구, '천원의 동행' 장애인 일상 돌봄까지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로 '천원세탁' 재원 마련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의 대표 복지 브랜드 '천원의 동행'이 장애인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로 한층 확대된다. 서구는 22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천원세탁·천원정리수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남연) ▲착한도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위보환) ▲(사)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협회(협회장 정영동)가 참여해 인력 양성, 서비스 운영, 행정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천원세탁'은 스스로 위생 관리가 어려

운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한 통이면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건조·배송까지 전 과정을 1건당 천원에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해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마련된 6200만원을 재원으로 운영돼 지역사회 나눔이 다시 돌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천원정리수납'은 시각적 감각과 손기술이 뛰어난 청·연어 장애인들이 전문 인력으로 참여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공간 정리와 수납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구는 취업 사각지대의 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착한 복지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석우 기자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